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미국

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 총 과세 가능 자원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중국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한국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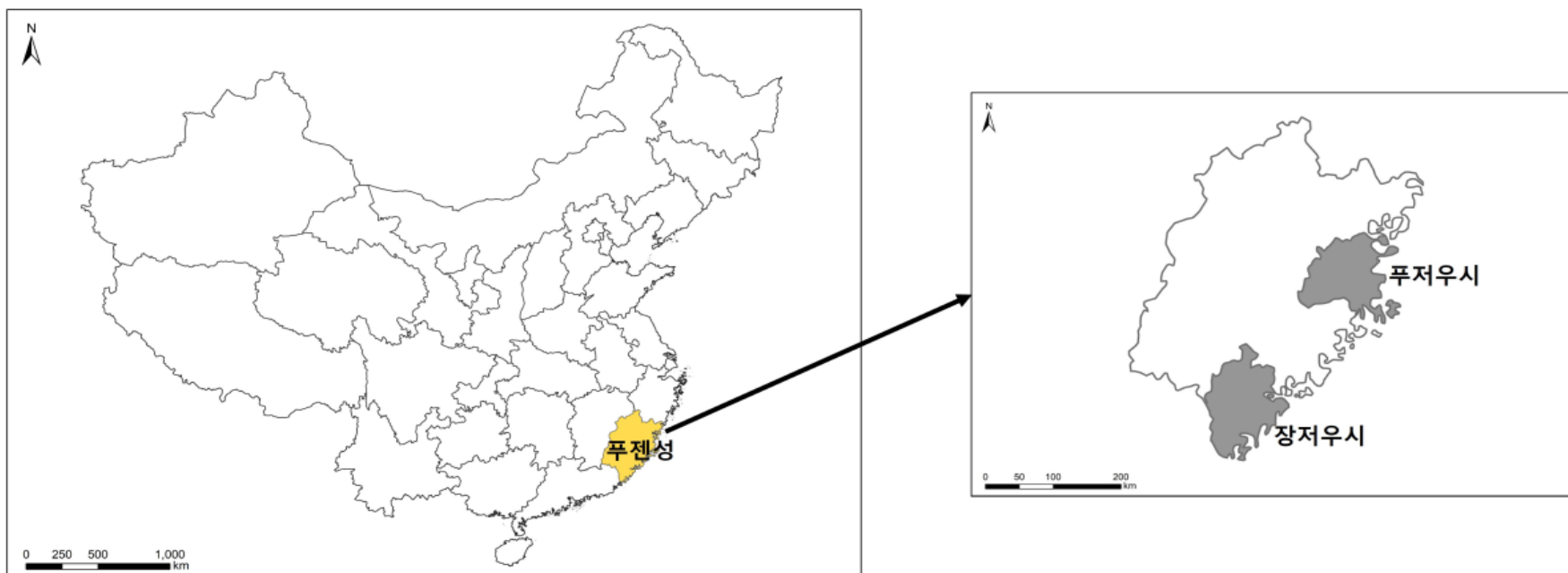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개요

- ▶ 중국 국무원은 2023년 1월 11일 중국-인도네시아 / 중국-필리핀 경제·무역 혁신 발전 시범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였음
- ▶ 중국-인도네시아 산업단지는 푸젠성 푸저우시에 설립하고, 중국-필리핀 산업단지는 푸젠성 장저우시에 설립하기로 함

그림 1. 푸젠성 푸저우시, 장저우시의 위치



출처: 저자 작성

- ▶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차원에서 승인해준 타 국가와의 공동 산업단지 조성 사례는 많지 않음
 - 중국 국무원 정책문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2015년 12월 랴오닝성 선양에 중국-독일 첨단 장비 제조 산업단지 건설, 2017년 12월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에서의 중국-한국 산업단지(한-중 산업원) 건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

- ▶ 중국이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점과 조성지역이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거점(시작점)이 되는 푸젠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의 사례에 대해 조사·정리하였음
 - 각 언론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푸젠성이 역사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많은 화교를 배출한 지역으로, 화교들의 자본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 현황

- ▶ 중국-인도네시아 산업단지는 “两国双园(양국쌍원, 양국에 각각 하나씩의 산업단지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푸저우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자바섬 중부에 있는 스마랑에 건설하기로 함
 - 양국은 2021년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래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함께 ‘인도네시아 해양 어업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중국 국내시장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향후 인도네시아에 9개의 어업 분류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매년 500만 톤의 수산물을 푸저우로 가져와 가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푸저우에 건설되는 중국-인도네시아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푸저우시가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의 우위에 기반하여 각종 투자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미 44개 프로젝트에 214억 위안(약 3.88조 원)이 투자되어, 상품 생산이 시작되었고, 콜드 체인 물류 기지와 글로벌 어업 센터 등의 프로젝트가 초기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투자 프로젝트(연구 프로젝트 포함)에 463억 위안(약 8.4조 원)이 투자될 예정임
- ▶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또한 “两国双园(양국쌍원, 양국에 각각 하나씩의 산업단지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장저우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은 루손섬 중앙에 있는 바타안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2022년 4월 MOU를 체결하였음
 - 중국-인도네시아 산업단지처럼 아직 구체적인 건설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지만, 식품 가공, 해양경제, 농업, 자원(석유·가스) 협력, 콜드 체인 물류, 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음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와 시사점

- ▶ 중국은 국외에서는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에 공동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국 내에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임
 - 화교라는 중국과의 매개체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해상 실크로드의 경우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항만 건설과 같은 물질적인 실체가 있으나,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와 시사점

-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해양 국가들과 식품산업, 어업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일대일로 사업 중 해상 실크로드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함
- ▶ 기존 일대일로 중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 군사적 목적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운송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였다면, 이 사업을 계기로 경제 협력 분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남중국해라는 중국·동남아 간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어 공동 산업단지 조성의 추진과정에서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 중국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콜드 체인 건설과 수산물의 수입은 인구와 영토에 비해 바다 면적이 좁은 중국의 처지에서 양질의 수산물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사례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재천 통신원

jcleee@khu.ac.kr

중국과학원 지리·자원연구소 인문지리학 박사과정